

DBpia

『三國遺事』 「避隱」 '永才遇賊' 조 검토

A commentary of Youngjae Woojeok(永才遇賊) in Samgookyusa(『三國遺事』)

저자 (Authors)	조법종 Cho, Bup-jong
출처 (Source)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1 , 2010.4, 255-264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12242
APA Style	조법종 (2010). 『三國遺事』 「避隱」 '永才遇賊' 조 검토. 신라문화제학술 발표논문집, 31, 255-2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7 14: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 「避隱」 ‘永才遇賊’ 조 검토

조 범 중*

<目 次>

- | | |
|----------------------------------|-------------------------------|
| I. 『三國遺事』 「避隱」 ‘永才遇賊’
本文 및 註釋 | II. 『『三國遺事』 「避隱」 ‘永才遇賊’
翻譯 |
|----------------------------------|-------------------------------|

[한글요약] 『三國遺事』 永才遇賊조의 기록은 승려 永才가 南岳 즉, 통일신라시기 智異山 지역으로 은거하는 과정에서 만난 賊으로 표현된 존재들에게 들려준 향가인 遇賊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향가는 원성왕(785~798)시기에 활동한 승려 永才와 관련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먼저 향가의 성격에 대해 우적가(양주동, 조운제), 도적가(홍기문, 김사엽), 영재술회(정열모), 도둑만난 노래(김선기) 등으로 지칭되며 향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갖고 있는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영재가 조우한 도적들의 성격이다. 이들이 향가를 이해하고 영재에 감복되어 함께 지리산에 은거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통일신라사회에서 이탈한 정치적 세력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영문요약] This commentary of Youngjae woojeok(‘永才遇賊’) in Samgookyusa(『三國遺事』) is aimed to comprehend the background of writing age. In generally

* 우석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대표논저: 2006, 『고조선 고구려사연구』; 2007, 『이야기 한국고대사』(공저); 2009, 「한국 고중세 백두산신앙과 만주명칭의 기원」, 『한국사연구』 147, 한국사연구회; 2010,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2007,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79, 백산학회.

this part research concentrated Korean ancient lyric, HyangGa(鄉歌). But historical parts, Yongjae's the other party mans, written Jeok(賊), had very political characters. In some part they were not robber but political opposition group.

[주제어] 영제우적(永才遇賊, Youngjae woojeok), 우적가(遇賊歌, woojeokga), 도적(盜賊, thieves), 향가(鄉歌, HyangGa)

I. 『三國遺事』 「避隱」 「永才遇賊」 本文 및 註釋

永才遇賊¹⁾

釋永才，性滑稽，²⁾ 不累於物，善鄉歌。暮歲將隱于南

1) 『三國遺事』 永才遇賊조의 기록은 승려 永才가 南岳 즉, 智異山 지역으로 은거하는 과정에서 만난 賊으로 표현된 존재들에게 들려준 향가인 遇賊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향가는 원성왕(785~798)시기에 활동한 영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우적가(양주동, 조운제), 도적가(홍기문, 김사엽), 영재술회(정열모), 도둑만난 노래(김선기) 등으로 지칭되며 향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갖고 있는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영제가 조우한 도적들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주목된다.

金承燦, 1990, 「遇賊歌 研究」, 『新羅文化』 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 滑稽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 매끄럽고 익살스러워 웃음을 자아내는 일”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史記』 71. 列傳 11 樛里子조와 『史記』 126 滑稽列傳조에 대한 『索隱』의 주석을 보면 “끝은 어지러운 것이고 계는 같은 것이다. 말을 분변 있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맞는 것을 틀린 것처럼 말하여 같고 틀린 것을 헛갈리게 하는 것이다(滑, 亂也. 稽, 同也. 謂辨捷之人, 言非若是, 言是若非, 謂能亂同異也)”라고 하였다.

사마천은 특히, 『사기』의 열전으로 골계열전을 두어 이같은 능변자들을 특기하고 있는 데 영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一然은 滑稽家로서

岳,³⁾ 至大峴嶺,⁴⁾ 遇賊⁵⁾六十餘人.⁶⁾ 將加害, 才臨刀無懼

의 영재의 성격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성격규정은 영재가 도둑들을 만났을 때 화기롭게 대하고 향가를 통해 감동을 주고 또한 도적들의 사례를 거절하는 등 일련의 언사를 통해 깨달음을 유도한 행동이 『사기』 등에 전하는 골계가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파악하여 단순히 성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으로서도 滑稽를 강조하였다고 이해된다.

3) 남악은 『삼국사기』 제사지에 의하면 통일신라의 5악으로서 동악인 吐含山, 남악인 智異山, 서악인 鷄籠山, 북악인 太白山, 중앙인 父岳(팔공산)이 제시되어 있는 데 그 가운데 남악인 지리산을 부르던 명칭이다. 5악은 삼국통일 직후에 성립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인 中祀가 행해졌다.

4) 大峴嶺의 위치에 대해 경주에서 남악인 智異山으로의 행로를 추적할 때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상리의 華岳山옆에 위치한 大峴[한재]가 교통로 및 다수의 도적이 은거할 수 있는 공간을 감안할 때 우적가의 창작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성호경, 1998, 「향가 ‘우적가’의 창작배경 고찰 - 청도군 ‘大峴[한재]’ 일대와 작품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학보』 Vol 24, No 4, 일지사. 한편, 영재의 향가가 불려진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창능력과 공간의 의미를 부각하는 연구도 있다.

이영태, 2002, 「향가의 가창현장과 우적가」, 『우리문학연구』 15.

5) 賊이란 표현은 鼎자 옆에 刀를 새긴 모습으로 금문에는 鼎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鼎은 중요한 誓約을 한 후 神靈의 照鑑을 받는 것으로 중요한 盟約을 맺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賊은 이같은 맹약의 상징에 무기(戎)를 들이대었기 때문에 맹약을 파괴한 행위를 나타낸 글자이다.

白川 靜, 2004, 『新訂 字統』, 平凡社, pp. 575~576

한편, 이 같은 賊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삼국유사』에 나타난 賊자의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第十四儒理王代, 伊西國人, 來攻金城, 我大舉防禦, 久不能抗. 忽有異兵來助, 皆珥竹葉, 與我軍并力, 擊賊破之. 軍退後不知所歸, 但見竹葉積於未鄒陵前, 乃知先王陰鷲有功, 因呼竹現陵(『三國遺事』 1卷 1紀異 未鄒王/竹葉軍).

色，怡然當之。賊怪而問其名，曰永才。賊素聞其名，乃

2) 問女根谷必有賊兵，掩取殺之。二角干既受命，各率千人問西郊，富山下果有女根谷，百濟兵五百人，來藏於彼，並取殺之，百濟將軍于召者，藏於南山嶺石上，又圍而射之殲。又有後兵一千二百人來，亦擊而殺之，一(『三國遺事』1卷 1紀異 善德王知幾三事)。

3) 王師定百濟，既還之後，羅王命諸將，追捕百濟殘賊，屯次于漢山城，高麗靺鞨二國兵來圍之，相擊未解(『三國遺事』1卷 1紀異 太宗春秋公)。

4) 七月三日，大恭角干賊起，王都及五道州郡并九十六角干相戰大亂，大恭角干家亡，輸其家資寶帛于王宮。新城長倉火燒，逆黨之寶穀在沙梁牟梁等里中者，亦輸* <壓,入>王宮。亂彌三朔乃息，被賞者頗多，誅死者無算也。表訓之言國殆，是也(『三國遺事』2卷 2紀異 惠恭王)。

상기 자료에서 확인되었듯이 賊은 1)이서국인의 침입, 2, 3)백제의 침입군, 4)대공각간의 반란군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다음 두 사료에서 보듯이 도적이란 표현은 국내의 정적이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도적무리 등을 표현할 때 盜賊이란 표현으로 구분지어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是爲惠恭大王。幼冲故，太后臨朝，政條不理，盜賊蜂起，不遑備禦，訓師之說驗矣(『三國遺事』2卷 2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第五十一，眞聖女王，臨朝有年，乳母鳧好夫人，與其夫魏弘亟干等三四寵臣，擅權撓政，盜賊蜂起，國人患之，乃作陀羅尼隱語，書投路上(『三國遺事』2卷 2紀異 眞聖女王/居陀知)。

그런데 ‘盜’의 의미가 기왕의 竊盜者로 파악되는 성격이외에 이같은 國家의 公權力에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성격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측은 ‘盜’라는 글자의 원래적 의미 검토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盜字는 次와 皿 또는 次와 血자로 구성되었다.(白川 靜, 2004, 『新訂字統』, 平凡社, pp. 646~647) 次는 물이 떨어지는 형상이지만 글자는 器中에 水를 注入할 때 罵穢를 가하는 형상이다. 여기서 皿은 곧 血인데 血盟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 血盟의 쟁반에 물을 붓는 것은 盟誓를 파기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곧 盜의 의미는 盟誓를 어기므로 그 共同體를 背反한다는 뜻이다.

한편, 중국사에서 나타나는 盜의 성격은 종래의 공동사회적 질서를 거부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政治的 亡命者集團이었다. 예를 들면 魯의 寶器를

命□□□作歌 其辭曰

도둑질한 남자는 당시 魯의 권력을 장악하여 일종의 僭主政을 시행하였던 陽虎였는데 孔子가 가장 두려워하였던 존재였다.(『春秋』 定八 盜竊寶玉大弓 杜注 盜謂 陽虎也) 이같이 당시의 權力者도 일종의 秩序外로 나가 행동하였을 때는 盜라고 불려졌고 공적 기록에도 盜로서 기록되었다. 요컨대 盜라는 것은 ‘共同體的 秩序의 圈外者’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詩』에 보이는 盜는 다른 곳 즉, 『左傳』에 異客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氏族의 共同體的 盟誓를 배반하고 남에게 의탁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의탁된 존재는 그 소속관계가 명확치 않은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예측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有益을 쫓아 활동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즉, 『左傳』 襄十年에 群不逞의 人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盜가 群團을 이루고 있고 反亂에 가담하여 暗殺을 請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反亂에도 개입하였고 특히, 暗殺者로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 어느 政治體에도 소속되지 않은 圈外者이면서도 그들에게 이로운 조건이면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字意的 檢討와 中國史에 존재한 盜의 성격 파악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은 盜라는 글자의 의미가 단순 竊盜行爲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共同體的 秩序破壞者라는 측면에서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들이 集團을 이루어 공권력에 대항하거나 刺客으로서 암살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盜라는 존재는 기존 공동체에 대항하는 존재로서 타인에 의해 구사될 수 있는 존재이며 특히, 軍事集團 및 刺客등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春秋時代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盜’의 의미는 단순한 절도의 의미도 존재하지만 앞서 지적된 성격도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左傳』 중에 나타나는 盜의 대부분은 지배층간의 권력투쟁이나 정적을 제거하는 데 구사된 존재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집단적 존재였다.(이성규, 『중국 고대제국성립사연구』, 1984, pp. 40~41) 또한 陽虎라는 존재가 ‘盜’로 표기된 것은 反體制的인 존재로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자 내지 이탈자라는 관념과 결부된 것이다. 또한 춘추시대 ‘盜’의 개념은 『左傳』 文公 3년조에 ‘凡民逃其上曰潰’라는 기사에서 ‘백성들이 집단적으

自 矣 心 米

로 도망한 존재”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도망은 방치된 황무지로 진행되었고 이처럼 盜가 澤地를 開墾, 農耕地化하여 私의으로 점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盜라고 불렀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공권력의 지배밖에 존재한 존재였다. 이같이 澤을 중심으로 형성된 田土와 新聚落은 실제 영유권이나 귀속이 모호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지배의 공백상태를 향유하였을 것이며 이 까닭에 이들을 盜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中國史에 나타나고 있는 ‘盜’관련 사료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해 볼 때 盜라는 용어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물건을 훔친 자라는 의미와 둘째,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배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의미가 현실적으로는 반체제적 존재들로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자 내지 이탈자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되어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변방지역의 자율적 독립 정치세력이라는 의미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盜, 賊 모두가 반국가적 성격에 대한 총칭적 의미가 강한 존재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賊으로 표현된 영제우적에 나타난 賊의 성격은 『三國遺事』, 『三國史記』에 사용된 용례와 쓰임을 감안할 때 신라에 대한 적대적인 정치적 성격을 갖는 존재들에 대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상황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賊의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즉, 汾西王七年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 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賊害薨(『三國史記』 24 百濟本紀 2)에서 보이듯이 백제에서 나타난 賊도 적대세력과 관련된 존재를 표시하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趙法鍾, 1997, 「百濟社會의 流亡民과 盜賊의 政治의 性格에 대한 檢討」, 『百濟研究』 제27집.

- 6) 본문의 賊으로 표현된 60여 인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고에서 신라왕권에 의해 소외된 농민, 노예들이 초적과 군적으로 변모하였음을 지적하였고(김철준, 1975, 「라말여초의 사회전환과 중세지성」, 『창작과 비평』 12, p. 774. 이들이 향가를 능숙하게 이해하고 있고, 향가를 잘하는 영제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식자 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영제의 노래에 감복하여 綾 2단을 주려한 상황에서 이들은 일반적인 도적 집단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賊으로 표현된 집단으로서 화랑단의 殘匪(박노순, 1975, 「우적가에 나타나는 盜賊의 本體」, 『어문논집』 16), 또

貌史毛達只將來吞隱日
 遠鳥逸□□過出知遣
 今吞藪未去遣省如
 但非乎隱焉破□主
 次弗□史內於都還於尸朗也
 此兵物叱沙過乎
 好尸曰沙也內乎吞尼
 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溍陵隱
 安支尙宅都乎隱以多

賊感其意，贈之綾二端，才笑而前謝曰：“知財賄之爲地獄根本，將避於窮山以餞一生，何敢受焉。”乃投之地。賊又感其言，皆釋劔投戈，落髮爲徒，同隱智異，不復蹈世⁷⁾。才年僅九十矣，在元聖大王之世⁸⁾。

는 원성왕 즉위과정에서 발생한 권력쟁패과정에서 축출된 김주원계 정치 세력일 가능성(이응재, 1990, 「우적이 설화의 연구」, 『평사민제선생화갑기념논문집』), 정치권에서 축출된 인물(강성근, 1998, 「우적이」, 『새로 읽는 향가 문학연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군도를 불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측면에서 六根의 心賊(김종우), 영제가 성속의 경계에서 일으킨 갈등의 비유(김승찬, 1990, 「우적이」, 『신라문화』 7), 불타가 성도한 후 최초로 교화한 60제자를 상징(장진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7) 영제의 말에 감복한 무리들이 영제와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간 이 사건은 영제가 피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적의 한 사례로서 파악하기도 한다. 서철원, 2006, 『新羅 鄉歌의 抒情主體相과 그 文化史的 展開』,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원성왕은 780년(혜공왕 16) 金良相과 함께 金志貞의 난을 평정하고 혜공왕을 죽인 뒤,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그뒤 선덕왕이 자식 없이 죽자 金周元과 왕위다툼을 하게 되

讚曰 策杖歸山意轉深，綺紈珠玉豈治心。綠林君子休相贈，地獄無根尺寸金。

었다. 『삼국사기』 원성왕 즉위조를 보면 김주원의 집은 서울 북쪽 20리에 있었고 그때 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불어서 김주원이 건너오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人君의 큰 자리는 본래 人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폭우는 하늘이 혹시 주원을 내세우지 못하게 함이 아닌가? 지금 상대등 경신은 전왕의 동생으로 본래 덕망이 높고 인군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만장일치로 그를 세위 왕위를 계승하게 하니 얼마 안 있어 비가 그치고 백성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당시 김경신보다 서열이 높은 김주원이 왕위에 추대되었는데, 김경신이 복두를 벗고 흰 갓을 쓴 뒤 十二絃琴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고, 아찬 餘三의 해몽을 따라 北川神에게 제사를 올렸더니 알천의 물이 불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즉위과정 에 따른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후대 김주원의 아들 김현창과 손자 김범문의 난으로 연결되어 정치, 사회적 혼란이 추정된다. 이를 영재관련 기록과 연결하여 원성왕대의 재난과 이변을 함께 연결한 이해도 진행되었다. 황패강, 1994, 「우적가연구」, 『국문학논집』 14, 단국대, pp.189~192.

원성왕대의 정치상황과 관련 재이 등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 참조. 최의광, 2009, 「新羅 元聖王의 王位繼承과 國人」, 『韓國史學報』 제37호 고려사학회.

한준수, 2009, 「신라 中・下代 鎮・道・府의 설치와 체제 정비」, 『한국학논총』 제31집.

金敬愛, 2006,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 王室의 成立」, 『韓國古代史研究』 41, 한국고대사학회.

신정훈, 2004, 「新羅 元聖王 卽位初의 政治的 推移와 그 性格」, 『白山學報』 68, 白山學會.

金昌謙, 1999, 「新羅 元聖王系 王의 皇帝, 皇族의 地位와 骨品 超越化」, 『白山學報』 52, 白山學會 .

金壽泰, 1985, 「新羅 宣德王, 元聖王의 王位繼承; 元聖王系의 成立과 관련 하여」, 『東亞研究』 제6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李基東, 1980, 「新羅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제85집, 역사학회.

『三國遺事』 5卷, 8 「避隱」, ‘永才遇賊’.

II. 『『三國遺事』 「避隱」 ‘永才遇賊’ 翻譯

영재우적(永才遇賊)

永才스님은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鄉歌를 잘했다. 만년에 장차 南岳에 은거하려고 가다가 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도둑 60여 명을 만났다. (도둑들이 그를 해치려 했으나 영재는 칼날 앞에 섰어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화기롭게 대하였다. 도둑들이 이상히 여겨 그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했다. 도둑들이 평소에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이에 노래를 짓게 했다. 그가 사는 이리하다.)⁹⁾

제 마음에
형상을 모르려던 날
멀리 □□ 지나치고
이제란 숨어서 가고 있네
오직 그릇된 파계주를
두려워할 짓에 다시 또 돌아가리!
이 쟁기(무기, 칼, 도둑의 흉기)랄사 지내곤
좋은 날이 새리이니
아으 오직 요만한 흠은
아니 새 집이 되니이다.

9) 영재가 부른 노래를 禪歌(지현영), 自警歌(김중우), 說道의 노래(장덕순, 1960, 『국문학통론』), 淨土往生의 노래(김승찬, 1986, 『향가문학론』, 새문사), 불교적 교훈가(최철, 1981,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등으로 해석한다.

[양주동 해독]

도둑들은 그 노래에 감동되어 비단 2필을 그에게 주니 영재는 웃으면서 사양하여 말했다. “재물이 지옥에 가는 근본임을 알고 장차 궁벽한 산중으로 피해 가서 일생을 보내려 하는데 어찌 감히 이것을 받겠는가.” 이에 땅에 던지니 도둑들은 다시 그 말에 감동되어 가졌던 칼과 창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영재의 제자가 되어 함께 智異山에 숨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영재의 나이 거의 90살이었으니 元聖大王의 시대이다.

찬(讚)해 말한다.

지팡이 짚고 산으로 돌아가니 뜻이 한결 깊은데,

비단과 구슬인들 어찌 마음 다스리랴.

綠林의 君子들아 그런 것 주지 말라.

지옥은 다름아닌 탐욕이 근원이네.